



금주의 말씀

히브리서13장8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옛날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도구들을 지상하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각종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씨들을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다툼의 씨, 전쟁의 씨, 두려움의 씨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구 이곳저곳에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씨는 누구의 마음에 뿌려도 썩어 잘 낫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만이 이 씨가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이 마을에서 민은 썩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감사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마귀가 뿌린 씨가 썩어 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입니다. "감사하는 마을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대를 걸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과거의 우리 인생에도 역사해 주셨고, 오늘 곧 현재의 인생에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곧 미래의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인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민자는, 어제의 하나님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상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취임하자마자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무엘의 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 성회가 한참 개최되고 있는데, 정보가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철막해 옵니다. 무장해제

의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천둥과 번개로 어지럽게 함으로 백성들을 블레셋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그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승리 직후에 사무엘은 큰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물로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어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무지개가 반짝일까요? 원래는 동그란 원형입니다. 땅에 비추니 반짝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자 블레셋 적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천둥과 번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적진에서 천둥 치는 소리밖에 듣지 않았는데 놀라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무지개처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함께 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매 2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영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28: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요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

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 성령님 보혜사 성령 내 곁에 계시며 나를 항상 지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121:4-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 쪽에서 네 곁이 되시니 히 13: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며 주는 너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사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내일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함께 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인 동시에 내일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창22: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신이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목자 이삭을 버치라 하여 모리아 산을 오르지만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내일을 위한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미라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1: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있는가 싶었는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안개와 똑같은 겁니다. 어제의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여호와이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외부필자의 일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



홍기엽 교수
·한정대학교 환경정책학과 교수

창조-진화 논쟁은 신앙과 과학의 논쟁이 아니라 역사전쟁이며 또한 신앙의 전쟁이다. 신앙의 전쟁은 다른 표현으로 종교전쟁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창조-진화 논쟁은 역사전쟁이며, 종교전쟁이다.

조지 윌드(1906-1997)는 1967년에 그라니트(R. A. Granite), 하틀린(H. K. Hartline)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학자이다. 조지 윌드는 진화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Innovation in Biology", Scientific American, Vol. 199, p. 100, 1958).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에게만 단 두 개의 가능성만이 있다.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 혹은 우연 발생 진화. 이 외의 또 다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자연 발생은 이미 120년 전에 우리 파스퇴르 등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 되었으므로 신의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했다는 것이다."

조지 윌드는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진화를 믿음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진

화론 신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 이상으로, 진화론자들도 (과학적 증거가 아닌) 믿음으로 진화를 받아들인다.

조지 윌드는 진화론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격으로 자신의 진화 신앙을 고백한 것이다. 진화론자들 중에는 조지 윌드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진화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으며, 진화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

진화론자인 마이클 루스(1940-2024)는 진화론의 종교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화론은 어느 단계에서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선험적인 혹은 형이상학적 가정

종교전쟁(1)

필요로 하는, 종교와 같은 것이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던 진화론자 줄리언 헉슬리(1897-1975)는, 유네스코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진화론을 유네스코 철학의 기초로 삼아 세계대일정부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Julian Huxley, 'A Philosophy for UNESCO-1946', The UNESCO Courier(Paris), (1976) pp. 14, 23).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람의 운명은 매우 단순하게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최소 시간에 최대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왜 유네스코의 철학이 진화론적 배경을 가져야 하며, 왜 진화 개념이 이 철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유네스코의 모토는 분명하다. 그 과제는 결코 달성된 적이 없었던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를 교육, 과학, 문화 등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적 정치기구를 만들어, 전쟁을 피하기 위한 확고한 수단으로 세계대일정부 수립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진화론은 단순한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철학이며, 종교이며, 이념이다.

캘리포니아 대륙의 저명한 연구자로 잘 알려진 중국인 고생물학자 Jun-Yuan Chen은 천창의 화석기록에 의하면 다윈의 진화계통수를 뒤집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클리 대학교에서 분자/세포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Jonathan Wells가 1999년 2월에 Jun-Yuan Chen을 초청하여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강연을 하도록 했다.

Jun-Yuan Chen은 칼브리아기 지층에서 여러 주요한 동물문(Animal Phyla)의 화석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다윈의 진화론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특정한 화석 자체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아무도 다윈의 진화론 자체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강연이 끝난 후, Chen은 Wells에게, 왜 아무도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것은 질문하지 않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러자 Wells는 말하기를, 대부분의 미국 과학자들은 다윈을 비판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Chen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는 다윈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는 비판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다윈은 비판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과학 학술지에 창조론적 논문을 게재하였다든 이유로 편집인이 해당당한 경우도 있다. 오늘날 진화론은 (공교육을 지배하고, 학계를 지배하는) 신성불가침적 지위를 누리는 종교다.

외부필자의 일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85. 새 계명(요 13:31~35)

예수께서는 배반자 가룟유다가 파진 자라에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부여해 주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19:18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과 뜻이 같지만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민족적인 범주와 인간적인 한

계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지만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실천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 계명이 있었는데 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신약자인 헬드라스는 '새 계명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자속적인 사랑의 화생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렌스키는 '새 계명은 모세가 명령하였고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사랑 화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그 동안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자속적이고 화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적인 서로 서로 하는 사랑을 명령하신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글-김승원 목사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목회: '말씀과 기도로 주를 찬양하며 (창1:1) 하소서' (창1:1)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3부 1:00 ·주일오전 4부 3:00 ·주일오전 5부 5:00 ·주일오전 6부 7:00 ·주일오전 7부 9:00 담임: 함창영 목사 623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607(광복동) 대표전화: 062-266-8022 FAX: 062-266-8022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흥제일교회 목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복음' (골3:14) ·주일오전 1부 7:30 ·주일오전 2부 9:00 ·주일오전 3부 11:00 ·주일오전 4부 1:00 ·주일오전 5부 3:00 ·주일오전 6부 5:00 ·주일오전 7부 7:00 ·주일오전 8부 9:00 담임: 임영환 목사 61127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5번길 46(문흥동) 대표전화: 062-266-8025 FAX: 062-266-802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벤엘교회 목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의 동행' (골3:14) ·주일오전 1부 7:00 ·주일오전 2부 9:00 ·주일오전 3부 11:00 ·주일오전 4부 1:00 ·주일오전 5부 3:00 ·주일오전 6부 5:00 ·주일오전 7부 7:00 ·주일오전 8부 9:00 담임: 리종현 목사 61810 광주광역시 남구 문흥동 170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062-266-8024 FAX: 062-266-8024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목회: '주님 사랑의 사랑' (골3:14)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3부 1:00 ·주일오전 4부 3:00 ·주일오전 5부 5:00 ·주일오전 6부 7:00 ·주일오전 7부 9:00 담임: 임종환 목사 61020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34(문흥동) 대표전화: 062-266-8025 FAX: 062-266-802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유일교회 목회: '주님 사랑의 사랑' (골3:14)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3부 1:00 ·주일오전 4부 3:00 ·주일오전 5부 5:00 ·주일오전 6부 7:00 ·주일오전 7부 9:00 담임: 남정호 목사 61747 광주광역시 남구 문흥동 129번길 7 대표전화: 062-266-8021 FAX: 062-266-8022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목회: 'THE 미션' (골3:14)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3부 1:00 ·주일오전 4부 3:00 ·주일오전 5부 5:00 ·주일오전 6부 7:00 ·주일오전 7부 9:00 담임: 정영호 목사 61073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번길 3 대표전화: 062-266-8021 FAX: 062-266-8022
기독교한국침례회 아시아침례교회 목회: '내 마음, 복음, 사랑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22:37-40)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3부 1:00 ·주일오전 4부 3:00 ·주일오전 5부 5:00 ·주일오전 6부 7:00 ·주일오전 7부 9:00 담임: 김용환 목사 6244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흥동 71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062-266-8022 FAX: 062-266-8022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목회: '주님 사랑의 사랑' (골3:14) ·주일오전 1부 7:30 ·주일오전 2부 9:00 ·주일오전 3부 11:00 ·주일오전 4부 1:00 ·주일오전 5부 3:00 ·주일오전 6부 5:00 ·주일오전 7부 7:00 ·주일오전 8부 9:00 담임: 신은수 목사 61010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45번길 10 대표전화: 062-266-8025 FAX: 062-266-8026	한국기독교장로회 풍암계림교회 목회: '주님 사랑의 사랑' (골3:14) ·주일오전 1부 11:00 ·주일오전 2부 1:00 ·주일오전 3부 3:00 ·주일오전 4부 5:00 ·주일오전 5부 7:00 ·주일오전 6부 9:00 ·주일오전 7부 11:00 ·주일오전 8부 1:00 ·주일오전 9부 3:00 ·주일오전 10부 5:00 ·주일오전 11부 7:00 ·주일오전 12부 9:00 담임: 김성훈 목사 62040 광주광역시 서구 문흥동 38번길 4-17(문흥동) 대표전화: 062-266-8025 FAX: 062-266-802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소망교회 목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사랑' (골3:14) ·주일오전 1부 9:00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전 3부 1:00 ·주일오전 4부 3:00 ·주일오전 5부 5:00 ·주일오전 6부 7:00 ·주일오전 7부 9:00 ·주일오전 8부 11:00 ·주일오전 9부 1:00 ·주일오전 10부 3:00 ·주일오전 11부 5:00 ·주일오전 12부 7:00 ·주일오전 13부 9:00 ·주일오전 14부 11:00 ·주일오전 15부 1:00 ·주일오전 16부 3:00 ·주일오전 17부 5:00 ·주일오전 18부 7:00 ·주일오전 19부 9:00 ·주일오전 20부 11:00 ·주일오전 21부 1:00 ·주일오전 22부 3:00 ·주일오전 23부 5:00 ·주일오전 24부 7:00 ·주일오전 25부 9:00 ·주일오전 26부 11:00 ·주일오전 27부 1:00 ·주일오전 28부 3:00 ·주일오전 29부 5:00 ·주일오전 30부 7:00 ·주일오전 31부 9:00 ·주일오전 32부 11:00 ·주일오전 33부 1:00 ·주일오전 34부 3:00 ·주일오전 35부 5:00 ·주일오전 36부 7:00 ·주일오전 37부 9:00 ·주일오전 38부 11:00 ·주일오전 39부 1:00 ·주일오전 40부 3:00 ·주일오전 41부 5:00 ·주일오전 42부 7:00 ·주일오전 43부 9:00 ·주일오전 44부 11:00 ·주일오전 45부 1:00 ·주일오전 46부 3:00 ·주일오전 47부 5:00 ·주일오전 48부 7:00 ·주일오전 49부 9:00 ·주일오전 50부 11:00 ·주일오전 51부 1:00 ·주일오전 52부 3:00 ·주일오전 53부 5:00 ·주일오전 54부 7:00 ·주일오전 55부 9:00 ·주일오전 56부 11:00 ·주일오전 57부 1:00 ·주일오전 58부 3:00 ·주일오전 59부 5:00 ·주일오전 60부 7:00 ·주일오전 61부 9:00 ·주일오전 62부 11:00 ·주일오전 63부 1:00 ·주일오전 64부 3:00 ·주일오전 65부 5:00 ·주일오전 66부 7:00 ·주일오전 67부 9:00 ·주일오전 68부 11:00 ·주일오전 69부 1:00 ·주일오전 70부 3:00 ·주일오전 71부 5:00 ·주일오전 72부 7:00 ·주일오전 73부 9:00 ·주일오전 74부 11:00 ·주일오전 75부 1:00 ·주일오전 76부 3:00 ·주일오전 77부 5:00 ·주일오전 78부 7:00 ·주일오전 79부 9:00 ·주일오전 80부 11:00 ·주일오전 81부 1:00 ·주일오전 82부 3:00 ·주일오전 83부 5:00 ·주일오전 84부 7:00 ·주일오전 85부 9:00 ·주일오전 86부 11:00 ·주일오전 87부 1:00 ·주일오전 88부 3:00 ·주일오전 89부 5:00 ·주일오전 90부 7:00 ·주일오전 91부 9:00 ·주일오전 92부 11:00 ·주일오전 93부 1:00 ·주일오전 94부 3:00 ·주일오전 95부 5:00 ·주일오전 96부 7:00 ·주일오전 97부 9:00 ·주일오전 98부 11:00 ·주일오전 99부 1:00 ·주일오전 100부 3:00 ·주일오전 101부 5:00 ·주일오전 102부 7:00 ·주일오전 103부 9:00 ·주일오전 104부 11:00 ·주일오전 105부 1:00 ·주일오전 106부 3:00 ·주일오전 107부 5:00 ·주일오전 108부 7:00 ·주일오전 109부 9:00 ·주일오전 110부 11:00 ·주일오전 111부 1:00 ·주일오전 112부 3:00 ·주일오전 113부 5:00 ·주일오전 114부 7:00 ·주일오전 115부 9:00 ·주일오전 116부 11:00 ·주일오전 117부 1:00 ·주일오전 118부 3:00 ·주일오전 119부 5:00 ·주일오전 120부 7:00 ·주일오전 121부 9:00 ·주일오전 122부 11:00 ·주일오전 123부 1:00 ·주일오전 124부 3:00 ·주일오전 125부 5:00 ·주일오전 126부 7:00 ·주일오전 127부 9:00 ·주일오전 128부 11:00 ·주일오전 129부 1:00 ·주일오전 130부 3:00 ·주일오전 131부 5:00 ·주일오전 132부 7:00 ·주일오전 133부 9:00 ·주일오전 134부 11:00 ·주일오전 135부 1:00 ·주일오전 136부 3:00 ·주일오전 137부 5:00 ·주일오전 138부 7:00 ·주일오전 139부 9:00 ·주일오전 140부 11:00 ·주일오전 141부 1:00 ·주일오전 142부 3:00 ·주일오전 143부 5:00 ·주일오전 144부 7:00 ·주일오전 145부 9:00 ·주일오전 146부 11:00 ·주일오전 147부 1:00 ·주일오전 148부 3:00 ·주일오전 149부 5:00 ·주일오전 150부 7:00 ·주일오전 151부 9:00 ·주일오전 152부 11:00 ·주일오전 153부 1:00 ·주일오전 154부 3:00 ·주일오전 155부 5:00 ·주일오전 156부 7:00 ·주일오전 157부 9:00 ·주일오전 158부 11:00 ·주일오전 159부 1:00 ·주일오전 160부 3:00 ·주일오전 161부 5:00 ·주일오전 162부 7:00 ·주일오전 163부 9:00 ·주일오전 164부 11:00 ·주일오전 165부 1:00 ·주일오전 166부 3:00 ·주일오전 167부 5:00 ·주일오전 168부 7:00 ·주일오전 169부 9:00 ·주일오전 170부 11:00 ·주일오전 171부 1:00 ·주일오전 172부 3:00 ·주일오전 173부 5:00 ·주일오전 174부 7:00 ·주일오전 175부 9:00 ·주일오전 176부 11:00 ·주일오전 177부 1:00 ·주일오전 178부 3:00 ·주일오전 179부 5:00 ·주일오전 180부 7:00 ·주일오전 181부 9:00 ·주일오전 182부 11:00 ·주일오전 183부 1:00 ·주일오전 184부 3:00 ·주일오전 185부 5:00 ·주일오전 186부 7:00 ·주일오전 187부 9:00 ·주일오전 188부 11:00 ·주일오전 189부 1:00 ·주일오전 190부 3:00 ·주일오전 191부 5:00 ·주일오전 192부 7:00 ·주일오전 193부 9:00 ·주일오전 194부 11:00 ·주일오전 195부 1:00 ·주일오전 196부 3:00 ·주일오전 197부 5:00 ·주일오전 198부 7:00 ·주일오전 199부 9:00 ·주일오전 200부 11:00 ·주일오전 201부 1:00 ·주일오전 202부 3:00 ·주일오전 203부 5:00 ·주일오전 204부 7:00 ·주일오전 205부 9:00 ·주일오전 206부 11:00 ·주일오전 207부 1:00 ·주일오전 208부 3:00 ·주일오전 209부 5:00 ·주일오전 210부 7:00 ·주일오전 211부 9:00 ·주일오전 212부 11:00 ·주일오전 213부 1:00 ·주일오전 214부 3:00 ·주일오전 215부 5:00 ·주일오전 216부 7:00 ·주일오전 217부 9:00 ·주일오전 218부 11:00 ·주일오전 219부 1:00 ·주일오전 220부 3:00 ·주일오전 221부 5:00 ·주일오전 222부 7:00 ·주일오전 223부 9:00 ·주일오전 224부 11:00 ·주일오전 225부 1:00 ·주일오전 226부 3:00 ·주일오전 227부 5:00 ·주일오전 228부 7:00 ·주일오전 229부 9:00 ·주일오전 230부 11:00 ·주일오전 231부 1:00 ·주일오전 232부 3:00 ·주일오전 233부 5:00 ·주일오전 234부 7:00 ·주일오전 235부 9:00 ·주일오전 236부 11:00 ·주일오전 237부 1:00 ·주일오전 238부 3:00 ·주일오전 239부 5:00 ·주일오전 240부 7:00 ·주일오전 241부 9:00 ·주일오전 242부 11:00 ·주일오전 243부 1:00 ·주일오전 244부 3:00 ·주일오전 245부 5:00 ·주일오전 246부 7:00 ·주일오전 247부 9:00 ·주일오전 248부 11:00 ·주일오전 249부 1:00 ·주일오전 250부 3:00 ·주일오전 251부 5:00 ·주일오전 252부 7:00 ·주일오전 253부 9:00 ·주일오전 254부 11:00 ·주일오전 255부 1:00 ·주일오전 256부 3:00 ·주일오전 257부 5:00 ·주일오전 258부 7:00 ·주일오전 259부 9:00 ·주일오전 260부 11:00 ·주일오전 261부 1:00 ·주일오전 262부 3:00 ·주일오전 263부 5:00 ·주일오전 264부 7:00 ·주일오전 265부 9:00 ·주일오전 266부 11:00 ·주일오전 267부 1:00 ·주일오전 268부 3:00 ·주일오전 269부 5:00 ·주일오전 270부 7:00 ·주일오전 271부 9:00 ·주일오전 272부 11:00 ·주일오전 273부 1:00 ·주일오전 274부 3:00 ·주일오전 275부 5:00 ·주일오전 276부 7:00 ·주일오전 277부 9:00 ·주일오전 278부 11:00 ·주일오전 279부 1:00 ·주일오전 280부 3:00 ·주일오전 281부 5:00 ·주일오전 282부 7:00 ·주일오전 283부 9:00 ·주일오전 284부 11:00 ·주일오전 285부 1:00 ·주일오전 286부 3:00 ·주일오전 287부 5:00 ·주일오전 288부 7:00 ·주일오전 289부 9:00 ·주일오전 290부 11:00 ·주일오전 291부 1:00 ·주일오전 292부 3:00 ·주일오전 293부 5:00 ·주일오전 294부 7:00 ·주일오전 295부 9:00 ·주일오전 296부 11:00 ·주일오전 297부 1:00 ·주일오전 298부 3:00 ·주일오전 299부 5:00 ·주일오전 300부 7:00 ·주일오전 301부 9:00 ·주일오전 302부 11:00 ·주일오전 303부 1:00 ·주일오전 304부 3:00 ·주일오전 305부 5:00 ·주일오전 306부 7:00 ·주일오전 307부 9:00 ·주일오전 308부 11:00 ·주일오전 309부 1:00 ·주일오전 310부 3:00 ·주일오전 311부 5:00 ·주일오전 312부 7:00 ·주일오전 313부 9:00 ·주일오전 314부 11:00 ·주일오전 315부 1:00 ·주일오전 316부 3:00 ·주일오전 317부 5:00 ·주일오전 318부 7:00 ·주일오전 319부 9:00 ·주일오전 320부 11:00 ·주일오전 321부 1:00 ·주일오전 322부 3:00 ·주일오전 323부 5:00 ·주일오전 324부 7:00 ·주일오전 325부 9:00 ·주일오전 326부 11:00 ·주일오전 327부 1:00 ·주일오전 328부 3:00 ·주일오전 329부 5:00 ·주일오전 330부 7:00 ·주일오전 331부 9:00 ·주일오전 332부 11:00 ·주일오전 333부 1:00 ·주일오전 334부 3:00 ·주일오전 335부 5:00 ·주일오전 336부 7:00 ·주일오전 337부 9:00 ·주일오전 338부 11:00 ·주일오전 339부 1:00 ·주일오전 340부 3:00 ·주일오전 341부 5:00 ·주일오전 342부 7:00 ·주일오전 343부 9:00 ·주일오전 344부 11:00 ·주일오전 345부 1:00 ·주일오전 346부 3:00 ·주일오전 347부 5:00 ·주일오전 348부 7:00 ·주일오전 349부 9:00 ·주일오전 350부 11:00 ·주일오전 351부 1:00 ·주일오전 352부 3:00 ·주일오전 353부 5:00 ·주일오전 354부 7:00 ·주일오전 355부 9:00 ·주일오전 356부 11:00 ·주일오전 357부 1:00 ·주일오전 358부 3:00 ·주일오전 359부 5:00 ·주일오전 360부 7:00 ·주일오전 361부		